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임원헌신예배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신년 성경통독이 6일(월)부터 8일(수)까지 저녁 7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바울서신을 읽습니다.

중구용산지방 사경회가 1월 6일부터 9일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6일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며 시작합니다. 강의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신천 집사·권사, 이명 집사·권사를 위한 임원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 다음 주일에 십일조와 월정헌금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교회 재정을 확정하고 지방회의 구역대표를 선출하는 구역회가 19일 오후 2시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2014년 교우전화번호부가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
| 렘 31:7~14 / 시 147:12~20 |
| 엡 1:3~14 / 요 1:1~9 |

| |
|-----------|
| 시 126:1-6 |
|-----------|

| |
|---|
| 오늘 식당 봉사 : 이형숙 광혜자 이미혜 이명희 강영님 문홍일 박호규 |
| 다음 주 식당봉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정숙 홍순구 최재욱 |
| 오늘설거지봉사 : 추현영 박진숙 박경선 윤석철 아동부·중고등부교사 |
| 다음주설거지봉사 : 추현영 박진숙 |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 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 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09:30 | 교육관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자비하신 하나님, 늘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 봐도 어쩔 수 없는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호홉한 번, 생각 하나, 눈길 한 번을 새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지나 않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국가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살림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 | | | | | | | | |
|-----|-----|-----|-----|-----|-----|-----|-----|-----|
| 강경희 | 강세기 | 이소애 | 강순배 | 권미숙 | 김경혜 | 김근종 | 정옥영 | 김남종 |
| 오복순 | 김성우 | 박유경 | 김승현 | 김수진 | 김인걸 | 문영혜 | 김일랑 | 이은옥 |
| 김정민 | 이혜령 | 김정애 | 김정진 | 김혜정 | 김중수 | 이순정 | 민병배 | 문현미 |
| 박규석 | 박경선 | 박범희 | 박미영 | 박상규 | 박옥순 | 배근수 | 김금순 | 배재경 |
| 이수정 | 송임희 | 송형운 | 하미림 | 시시권 | 백경임 | 안정숙 | 안종일 | 정현주 |
| 오진훈 | 노순옥 | 왕수명 | 우순덕 | 윤주원 | 최윤선 | 이계선 | 이소순 | 이동천 |
| 이민범 | 공재량 | 이범석 | 류정욱 | 이성범 | 권현숙 | 이용현 | 이증자 | 김창경 |
| 이진영 | 한양미 | 이현순 | 임영 | 정경례 | 장재영 | 김재영 | 전인섭 | 정복순 |
| 정한구 | 왕영순 | 조병주 | 주경진 | 이윤정 | 추현영 | 한상익 | 정영선 | 한성건 |
| 한완식 | 임정자 | 홍복선 | 홍선희 | 홍성식 | 이유리 | | | |

감사헌금

| | | | | | | | | |
|-----|-----|-----|-----|------|-----|-----|-----|-----|
| 강순배 | 권미숙 | 권미정 | 김용규 | 송명 | 김정길 | 최숙화 | 김정진 | 김혜정 |
| 민병배 | 문현미 | 박범희 | 박미영 | 박창운 | 허정윤 | 양재성 | 임미심 | 오규만 |
| 원주신 | 윤정덕 | 구성실 | 이범석 | 류정욱 | 이충노 | 이현순 | 정현모 | 정현선 |
| 한인철 | 조윤숙 | 홍성식 | 이유리 | 무명10 | | | | |

녹색꿈헌금

김성한 조영순 오미경 무명3

| | | | | |
|--|-----|-----|---|---|
| | 백혜숙 | 박성희 | | |
| | 신진식 | 최경미 | | |
| | 장영숙 | 신영신 | | |
| | 노순옥 | 진정숙 | | |
| | 박홍재 | 박홍재 | | |
| | 권미숙 | 박미영 | | |
| | 김금순 | 김금순 | | |
| | 곽권희 | 윤수진 | | |
| | 안홍숙 | 오현정 | 심 | 심 |
| | 정영선 | 홍춘숙 | | |
| | 박혜경 | 박혜경 | | |
| | 김재흥 | 오자영 | | |
| | 김재흥 | 송형운 | | |
| | 이범석 | 이진영 | | |
| | 이범석 | 곽상준 | | |
| | 신진식 | 윤성중 | | |

기도

새해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나라에서 살게 하소서.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 난데없는 불행으로 마음 졸이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게 많아서 신나는 사람보다는 가진 것만큼으로도 충분히 신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적게 먹고 적게 싸는 딱정벌레가 되더라도 ‘대박’의 요행 따위 꿈꾸지 않게 해주소서. 내 와이셔츠를 적시게 될 땀방울만큼만 돈을 벌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열정을 소비해온 지난날을 꾸짖어주소서. 부디 내가 나 아닌 이들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던 이에게는 남의 자식의 구멍 난 양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내 말을 늘어놓느라 남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이에게는 과도 소리를 담은 소라의 귀를 주소서. 백지장처럼 맑고 높은 정신으로 이 풍진 세상을 견디게 하소서. 이 땅의 젊은 아들딸들에게 역사는 멀찍이 서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프게 몸에 새기는 것임을 깨우쳐주시고, 늙고 병들고 나약한 이의 손등에 당신의 손을 얹어 이들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을 연장해주소서. 당신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통하지 않는 것을 통하게 해주소서. 겨울 팽나무의 흔들리는 가지 끝과 땅속의 묵묵한 뿌리가 한 식구라는 걸 알게 하시고, 숲 속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들의 길과 사람 사는 마을의 골목길이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 당신이 괴롭지 않은 세상 일구게 하소서.

- 안도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
|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 소속전도사 : 이재훈 |
|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 |
|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 |
| 지휘 : 윤주원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
|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되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에 서십시오.

아멘. 나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울 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 임원헌신예배 설교 : 김기석 | 신년 성경 통독 - 바울서신 -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 공동기도 박홍재 권사 | 김명희 집사 홍순구 권사 |

| 1월 | 영접위원 | 조병무 김중수 임주빈 홍복선 최현옥 오자영 |
|----|------|-------------------------|
| | 헌금위원 | 조병무 권미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믿음으로 읽는 글

시간의 끝에 영원이 있다

플로티노스에게 영원은 신의 마음이 사는 삶이고, 시간은 인간의 마음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는 한결같이 머무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둘 다 ‘마음의 삶’이라는 점에서 같지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부단히 신을 닮으려 하고, 시간 역시 꾸준한 집념으로 영원을 닮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은 결국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도록 하는 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신에게 이르면 그때는 시간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끝에는 영원이, 신이,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해지는 가능성이자 과정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불완전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은 모든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인 신에게 가는 문(門)이자 통로지요. 이것이 플로티노스가 찾아낸 시간의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눈물과 땀에 젖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고달픈 시간의 끝에 허무가, 악마가, 전락(轉落)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 신이, 구원이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그것이 빈말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닌가요?

어쩌면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말해 시간 안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통해 영원에 다다를 수 있는가? 또다시 공허한 사변 아닌가?” 만일 당신이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언급한 “일자 속에 머무르는 영원함”이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답할 겁니다. “그렇다. 그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다. 일자 속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영원한 삶이요, 진정한 존재와 생명을 차지하는 삶이니, 그 삶은 일자에게로 자신의 마음 [靈魂] 을 향하게 함으로써만 얻어진다.”

일자, 곧 신에게로 자신의 마음을 향하게 함! 바로 이것이 플로티노스가 발견한 영원한 삶을 얻는 구원의 방법이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종교적

언어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한 의도이며,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의 궁극적 의미이고 가치이지요!

여기서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플로티노스가 “일자에게로 자신의 마음을 향하게 함”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예시한, 다분히 추상적인 구원의 방법을 150년쯤 지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지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간’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신의 마음처럼 ‘영원’을 살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로 끝없이 분산되어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분산시켜 단지 흘러가고 말게 하는 것, 그래서 값어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간의 파괴성’을 극복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시간인 영원과 같은 시간, 즉 흘러가 버리거나 사라지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현재 안에 존재하는 시간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 마음을 분산시키고(distendo animae), 그 결과 삶마저도 단지 흘러가고 마는 것, 그래서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 물리적 시간의 끔찍한 파괴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애써 교훈하고 위로했지요. 바로 이것이 학자로서 그의 탁월함이자 종교인으로서 그의 위대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시간론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단지 흘러가고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인식되던 인간의 삶과 세계 역사에 ‘비록 한정적으로나마’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을 구원했지요. 인간의 삶과 역사는 헛된 것이 아니라고! 구원과 영원으로 나가는 통로라고!

- 김용규, 『서양문명을 읽는 코드 신』 중에서

* 플로티노스(205-270) : 유럽 고대 말기를 대표하는 그리스의 철학자·신비사상가. 후세에 그는 신(新)플라톤주의자라 불렸다. 그의 철학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학과 등의 영향도 컸다. 그 시대의 일원적·종교적 경향에 부응하여 영혼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 구원의 철학이기도 하였다.